

# 고흥군, 2025년산 고흥유자 본격 수확과 수매 시작

## 가격 작년보다 높아 재배 농가 소득향상 기대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일 두원농협 유자 수매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유자축제와 함께 본격 수확기에 접어든 고흥유자의 생산·유통 상황을 살폈다.

고흥군은 전국 최대 유자 주산지로서 유자 생산 농가의 판로 확보와 가격 안정을 위해 올해 약 7,880톤 규모의 유자를 수매할 계획이며, 유자 수매는 지난 11일부터 지역농협과 함께 관내 가공업체에서 진행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올해 유자 생산량은 봄철 저온으로 꽃는 확보가 저조해 생산량은 감소했으나, 재배면적 증가로 전체 생산량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8,770톤으로 예상된다.

현장 수매 가격은 평균 1kg당

4,500~5,000원 내외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4,000원보다 13~15%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농가 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수매장을 찾은 공영민 군수는 “유자는 고흥을 대표하는 브랜드이자 대표 특산물로, 농가 소득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농가와 함께 유자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고흥 유자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프리미엄 유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만찬에서 고흥 유자 원액을 사용해 만든 ‘호랑이 유자 생막걸리’가 공식 건배주로 선정되면서, 유



자축제 기간에는 배해정도가의 ‘호랑이 유자 생막걸리’와 서울장수의 ‘달빛유자 막걸리’를 시음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해 고흥 유자의 세계적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마련됐다. ‘고흥 유자’는 껍질이 두껍고 향이 진하며 산미가 적절해 품가가 뛰어나 가공업체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군은 지역 특화 가공품 생산을 확대하고, 국내외 유통·관측 행사를 강화해 고흥유자가 프리미엄 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고흥/박도일 기자



## 제5회 보성예술제, 보성군의 예술혼을 담아 성료

### 지역 예술과 창작 어우러진 다채로운 무대와 전시 선포

보성군은 지난 20일 보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5회 보성예술제’가 군민의 뜨거운 참여와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 예술제는 지역 예술인과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복합문화축제로, 보성의 고유한 전통예술과 현대예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지역 문화의 품격과 깊이를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행사는 (사)한국예총 보성지회(회장 서정미)가 주최 주관 했으며, 다카포아리아의 식전 공연에 이어 보성군 어머니합창단, 전통국악예술단 입소리, 타악그룹 얼쑤의 무대가 이어져 예술제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특히 보성의 소리와 전통을 담은 100인 관소리 합창 공연은 젊은 세대와 지역 어르신 모두에게 환호를 받으며 세대 간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냈다.

이어, 다문화 소고춤, 북대면 길잡이, 노동면 들뜰놀이 등 보성의 전통 민속공연이 펼쳐져 관람객들에게 보성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사)보성소리보존회, (사)보성소리마당, 보성소리창극단, 보성아리랑예술단 등 지역 대표 예술단체들이 참여해 각 단체의 색깔과 기량이 돋보이는 무대를 선했다.

아울러, 예술제 동안 문화예술회관 곳곳에서는 미술품 전시, 가방 꾸미기, 식물심기 체험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돼 남녀노소의 관람객들이 예술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다.

한국예총총회 서정미 보성지회장은 “보성예술제는 지역 예술인들이 자신의 창작과 열정을 군민과 직접 나누는 소중한 무대”라며 “앞으로도 보성의 문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운기 기자

# 장성군, ‘어르신이 편안한 경로당’ 만든다

## 경로당 305곳에 입식테이블·의자 지원... ‘문턱 낮추기 사업’ 시행

장성군이 경로당 이용 환경 개선에 나섰다. 군은 지난 18일부터 지역 내 305개 경로당에 6인용 입식테이블 691개, 의자 4177개를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좌식 생활 환경을 입식으로 전환해 낙상 사고를 막고,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올해 신규 시책인 ‘경로당 문턱 낮추기 사업’도 추진 중이다. △경로당 진입로 계단 및 경사로 보수 △안전손잡

이 설치 △노후 출입문 교체 △비가림 시설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갖춘다. 연말까지 총 29곳의 경로당에서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19일 남면 죽분남녀경로당을 방문한 지원 상황을 살핀 김한중 장성군수는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를 펼쳐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원장이 사례관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접근 방식을 설명하며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공유했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사례관리자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교육이 현장에서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18일 예코센터에서 민·관 통합사례관리자를 대상으로 중장년 1인 가구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민·관 사례관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담양군 주민복지과와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림종합복지관이 공동으로 추진했으며, 관내 통합사례관리자 60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사례관리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적용 방식을 함께 살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조소연 사회복지연구원 교수 마실 대표가 중장년 1인 가구의 특성과 정책 흐름, 지역에 필요한 지원 체계를

소개했다. 이어 증가하는 중장년 1인 가구의 복지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기초 방향을 제시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강경구 사랑센터

## 담양군, 중장년 1인가구 대응 역량 중심 사례관리 교육 진행

### 민·관 사례관리자 60명 참여해 통합사례관리 방향과 적용 방안 확인

특히, 사업 중심부에 LED 조명 방식의 입체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함으로써 야간에도 시인성이 확보되어 방문객의 위치 확인이 쉽고, 관광객 중심의 공항 관문 지역 이미지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군은 2021년부터 무안읍 낙지특

화거리,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내 대표 관광지인 회산백련지, 무안항도갯벌랜드 등에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고 적극 홍보하여 주민들과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영민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자율형

## 완도군, 2025년산 공공 비축미 3천여 톤 매입

완도군이 지난 5일 신지면을 시작으로 2025년 공공 비축 매입에 들어갔다. 수매 일정은 군외면 7일, 금일읍 12일, 금당면 13일, 약산면 17~18일, 노화읍·보길면 19~20일, 정산면 21일, 고금면 24~26일, 완도읍 27일 순으로 진행된다.

매입 물량은 공공 비축 미곡 2,078톤(산물 벼 912톤, 건조 벼 1,154톤, 전환경 벼 12톤), 벼 재배 면적 조정 감축 협약으로 868톤을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다.

올해 총 매입량 2,946톤은 작년 2,715톤 대비 소폭 증가했다.

매입은 완도농협 RPC(미곡종합처리장)와 고금 DSC(건조저장시설)에서 하며, 매입 가격은 포대당(40kg) 4만 원을 중간 정산금으로 우선 지급한다.

최종 정산은 수확기(10월~12월) 전국 평균 쌀값을 반영해 12월 말에 최종 확정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무안국제공항 관문지구 간판개선사업과 연계해 지역 특색과 도시 이미지를 살린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했다.

군은 방운면 소재지 내 주민협의회 및 지역다지인단의 의견을 수렴해 노후화된 간판 및 벽면 정비를 추진한 건물 56개소를 대상으로, 기존의 단순한 표준형 건물번호판에서 벗어나 공항 이미지와 건물 외벽 색상 등을 반영하여 조화롭게 디자인한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했다.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